

위기의 미국자본주의

정태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92년이래 6년간

장기성장을 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과연 '새로운
경제' (New Economy)를 향한
승승장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리저런 거품이 걷히고
나면 흔들릴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미국 경제를 살펴보았다.

신경제(New Economy)?

미국경제는 1991~92년 침체이래 6년간 장기 성장을 하고 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은 4.2%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8%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금석지감을 느낀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실업률은 28년만에 최저인 4.3%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률 마저 1.5%로 모든 거시 지표가 다 좋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경기가 과열이냐 아니면 더 좋아질 것이냐에 관한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논쟁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동안 진행된 것이다. 금년 초부터의 논쟁구도만 본다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다. 첫째로 미국경제는 지금 심각한 거품경제라는 견해가 있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를 대표한다. 둘째는 정반대로, 미국은 90년대 들어면서 구조적으로 변화해서 생산성 자체가 획기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이다. 주로 기업가들, 그리고 주거만같은 언론인의 주장이다(최근에 돈부



21세기형 경제비판의 모범으로 불침행모라 칭송했던 미국경제가 혼들리고 있다.
사진은 파업시위 중인 미국노동자들.

시와 같은 무게있는 경제학자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아직 자기 주장을 제대로 개진한 글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셋째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으로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크루그만 같은 인기 경제학자가 이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신경제(New Economy)를 주장하는 이들은 80년대 이래로 미국이 정보산업과 정보화에 집중부자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본다. 넷째로는 80년대 내내 진행된 리스트리츄어링,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등 우리 귀에도 악숙한 기업의 혁신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넷째로는 미국이 특별히 창의성을 높이 사는 교육과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커만(Zucker-
man)은 일본자본주의의 몰락(?)과 대비해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기업가적 상향 자본주의(entrepreneurial bottom up capitalism)로 요약한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언

반론은 어떠한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4월 18일자의 첫 문장이 아주 재미있다. “경제학자들은 어제 그가 일어나리라고 예측했던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일 알게 되는 전문가들이다”. 즉 내가 8월 15일에 한국경제는 극적으로 회생할거라고 예측했는데 16일에도 여전히

경제는 나빠지고 있는 경우, 왜 틀렸나 하루종일 고민하고 17일에야 아! 이래서 틀렸구나 하는게 경제학자라는 것이다. 즉 일이 완전히 터지고 난 후에나 그전 아래서 이랬다고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정후조차 부정하는 것이 경제학자라는 전문가들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낙관이 주도할 때 경제학자들 역시 그 분위기를 거스르는 냉철한 사고를 하는 것은 어렵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동아시아의 위기도 문제지만 미국의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더 세계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1/4분기 동안만 주식가격이 15% 올랐고, 작년까지 포함하면 65% 올랐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가격 상승이 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성과가 좋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부는 M3가 작년에 10%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기품이라는 것이다.

작년과 금년에 미국에 돈이 풀릴 이유가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냥 넘길만한 문제는 아니다. 거액의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했다. 아시아에서 빠져나간 돈을 중심으로 무려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1/4분기까지 15% 상승한 주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해서 2/4분기까지 30% 상승했

고 이러한 속도가 계속된다면 연률로는 2년만에 100%의 주가 상승이 이뤄지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도 틀며거리고 있다. 전체 주택가격이 4.9% 상승했고, 주요 도시 임대료도 20% 상승했다. 뉴욕 일부 땅값은 두 배로 뛰었다니까 80년대 한국의 호황 말기와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생산성 패러독스

이렇게 보면 미국 경제는 바람직한 구조변화를 겪는 가운데 순환적인 위기 직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짐작을 확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생산성, 부의 분배상황, 물가지수와 관련해서 다소 전문적인 몇 가지 논쟁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초부터 확연하게 생산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신경제의 주창자들이나 기업가들은 드디어 생산성 패러독스를 해결한 것으로 생각했다. 생산성 패러독스란 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에 그리도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실제 생산성은 향상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였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논점이 존재하는데 그 중 신 슈페터주의자(neo Schumpeterian)들의 견해가 흥미롭다. 이들에 따르면 기술발전이 실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려면 작업장부터 기업의

의사결정, 정부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며 따라서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아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훨씬 간단한 제도 개혁 조차 지지부진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제도 변화의 어려움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99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그러한 제도가 갖춰진 것일까? 쉬운 예를 들어보자. 워드프로세서가 나오면서 분명 과거에 비해 훨씬 편리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과 10여년 전에 실제의 종이를 잘라 붙이면서 글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해 보라. 그러나 전자화의 위력이 좀 더 발휘되기 위해서는 전자우편이라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필요로 했고 또 전자우편의 일상화를 기다려야했다.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개편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지금, 과연 문서 작성이 편리해진 만큼 문서의 내용도 발전한 것일까? 그리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정보기술에 따른 제도의 변화라는 면에서 독보적이라고 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거액의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했다. 아시아에서 빠져나간 돈을 중심으로 무려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여기에는 통계라는 기술적인 문제가 끼어 들었다. 미국은 1995년에 생산성 측정 방법을 바꿨다. 그 새로운 생산성 지표에 따르면 1990년대에도 1980년대와 비슷하게 별로 생산성이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도 70년대나 80년대와 마찬가지로 1%를 겨우 넘는 생산성 상승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경제론자들은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에 생산성 통계는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컨대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생산성을 과거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것인가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크루그만 등 신중론자들은 과거에도 그런 문제는 상존했으며 현재의 기술 발전이 80년대나 70년대에 비해 뚜렷하게 빠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다는 대답을 한다. 즉 우리는 앞에서 퍼스널 컴퓨터가 과연 생산성 향상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크루그만은 그 과장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예론 주도층, 혹은 자식계층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혜택을 받는 계층이어서 이들의 환호가 상황을 훨씬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미국의 NAIRU, 즉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는 최저 실업률인 5%

전후를 이미 돌파했는데 왜 인플레이션 이 일어나지 않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신 경제론자들은 잠재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에 대해 신중론자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보건제도가 관리보건(managed health care)으로 바뀜에 따라 노동자들의 부담이 줄 어들어서 임금 인상 요인이 줄어들었고 둘째, 노동자들이 하도 오랫동안 고생해서 임금인상보다 고용보장 쪽을 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떨어졌다는데 인플레이션률을 낮게 유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의 실체?

좀 더 숙고해야 할 것은 90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 미국경제의 문제가 구조적인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21세기는 아시아나 유럽의 세기라고 단언했다. 앞에서 예로 든 주카만은 자신의 글 제목을 '제2의 미국의 세기'라고 붙였다. 그럼 과연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우선 너무나 과장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악용되고 있는, 혹은 오해되고 있는 다운사이징과 리스트럭처링에 대한 생각부터 살펴보자.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리해고제가

있는 미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들어서 정리해고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람을 자르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아주 간단한 주장인데 이런 정도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대통령이라면 우리는 또 한 번 경제위기를 겪을 것이 틀림없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전국의 모든 기업이 20%의 노동자를 해고한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자들이 열심히, 또는 자신의 목을 부지하기 위해서 올며 겨자비 기로 더 많이 일해서 과거와 같은 양을 생산해 냈다고 하자(20% 이상의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가의 수요를 무시한다면 전국적으로 20%의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럼 안 팔리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유일한 대답은 수출이다. 그러나 점점 뚜렷해지고 있듯이 수출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아니 투명하게 나빠지고 있다. 전혀 수출이 되지 않는다면 20%의 상품이 안 팔릴 것이고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진다. 또 다시 해고를 한다. 또 안 팔린다. 이것은 케인즈가 그런 전형적인 유효수요 부족 위기이다. 다운사이징이 거시 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된 노동자가 어딘가 다른 곳에 취직해서 과거와 같거나 과거보다 많은 생산을 할 경우에만 설득력을 지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다운사이징이나 리스트럭처링과 현재의 호황은 거의 관계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활력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첫째는 이미 너무나 좋은 쪽으로만 과장되어 있는 실리콘밸리의 창의력과 함께 그들의 독점력에 주목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인텔의 아키텍처 장악은 정보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독점 형태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은 세계 차원에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제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상태에서, 즉 함부로 베낄 수 있는 권한(copy-left)이 제약된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인텔 독점은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갖는다. 이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에 맞춰서 제작된 소프트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눈덩이처럼 독점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어느 소비자가 새로운 운영체제를 익히는 그 귀찮음을 감수하려고 할 것인가. 제일 간단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도 웬만해서는 바꾸려지지 않는다. 기술 축면에서만 본다면야 사실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흉내내는 것은, 적어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IBM의 OS/2가 윈도우스 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프로그래머 사이들에서는 거의 공인된 일이다. 그러나 눈덩이효과가 작용되는 상태에서 기존의

미국의 활력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너무 좋게 과장되어 있는 창의력과 함께 독점력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은 수십년동안 세계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힘이다.

독점을 뒤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막대한 독점이윤을 얻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관련 정보기술산업(별티미디어, 인터넷의 그 무지막대한 환상과 가능성 을 보라)이 우후죽순처럼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에 무수히 많은 벤처회사, 컨설팅 회사, 회계법인들도 물론 그 부산물이다.

둘째는 금융자본이다. 여기에서 얻는 수입은 어마어마하다. 이 칼럼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 언급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예전에도 미국의 금융자본이 세계 제일이었음을 지적하는 반론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자. 70년대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그리고 80년대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절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냈다. 80년대 이후 IMF체제는 월스트리트-미재무성-IMF라는 삼각복합체로서 한결 새롭게 단장한 세계 지배체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자본은 재빨리 이동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 있으며 허상을 만들어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 불안정성의 요체가 있으며 앞으로 각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자본주의의 전전성과 관련해서 새롭게 세기된 논점은 전체적으로 계층간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이 요새 통계(스티글리츠 리포트)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재산가나 기업경영자가 곧 부사였는데 90년대 들어서는 회계사, 변호사, 프로그래머같은 전문인력의 부가 확연하게 증가했다. 물론 이 면에서도 미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아다시피 변호사, 회계사의 천국이다. 이들이 사회적 힘을 얻으면서 아마 이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도 발전했을 것이다. 예컨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제도나 관습, 복잡하지만 투명한 회계제도가 그러하다. 사실 법적 해결이 그리 '거래비용'이 낮은 것도 아니고 회계제도도 꼭 '거래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미국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교수들에게 아주 유리한 공간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세계의 두뇌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미국으로 몰려들고 또 웬만해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실 전 노동부 장관 라이시가 "국가의 역할"에서 미국을 '상징분석가'의 나라로 만들자고 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이 앞에서 세시한 두 독점체제 없이 생존 가능할 것인가? 조금 과장하자면 이들은 미국 독점체제에 기생하면서 그 체제를 수호하는 파수꾼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나라를 뒤파르자

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독점에 기초하고 있는 체제를 뒤파를 방법은 그러한 독점을 그 나라로부터 빼앗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을 근거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다지 좋은 편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실리콘밸리 제품에 대한 수요는 소득탄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컴퓨터 기종을 계속 높은 것으로 바꿔 나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컴퓨터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 이지던 아시아의 수요는 급속하게 위축될 것이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아들녀석의 게임을 위해서 컴퓨터를 바꿀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서 원도우98은 실패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최대의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실리콘밸리의 상징적 기업인 인텔과 헐렛팩커드가 최근에 인원 감축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전兆지도 모른다. 또 몇 주 전 주가가 폭락한 것은 모래성 천체가 무너지기에 앞서 방루에 금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 볼 때 미국경제는 조만간 침체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거품의 붕괴라는 급락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연착륙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확실한 것은 미국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의 상황은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어디로?

앞에서 보았듯이 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 성장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21세기도 미국의 세기'임을 증명하는 것일까? 내 대답은 '아니오'이다. 미국이 80년 대 고통의 시대를 거쳐 일

본식 생산방식을 일부 수용

하고 또 정보화라는 특장을 살면서 경쟁력을 회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IMF-월스트리트-미재무성의 삼각복합체가 냉전시대의 군산복합체만큼 강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첫째로, 최근 10년간 미국의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전후 초기와 같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세계는 3극의 시대라고 보아야 하며 미국의 해제모니를 바탕으로 한 1극 지배의 세계화보다는 3극 중심의 지역주의화가 더 현실적인 전망일 것이다.

둘째로, 미국 내부의 계급적 상황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신지배계급이 생겨났지만 중하층의 전반적인 지위 저하는, 현재의 호황이 무너지는 경우 내부의 사회정치적 안정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전후의 '제한적 자본-노동 협약(limited capi-

세계 자본주의는 결코 세계화, 정보화, (시장)자유화의 과장된 이데올로기가 그려내 보이는 잠미빛 미래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러한 과장이 가져온 거품의 불안정 위에 서 있다.

tal-labour accord : 미국 SSA학파의 용어로 대기업 노조 중심의 제한적 사회협약을 의미한다)이 무너진 후 새롭게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가 들어섰다가 보다 오히려 중하층 계급의 대반격이 준비되고 있는 시기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올바를 것이다.

셋째로, 국제 금융 상황

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70년대 말 아래로 지속적으로 강화되 기반하고 있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국제 금융위기로 폭발하는 경우 미국의 지배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 자본주의는 결코 세계화, 정보화, (시장)자유화의 과장된 이데올로기가 그려내 보이는 잠미빛 미래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과장이 가져온 거품의 불안정 위에 서 있다. 우리 세대는 환상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반동 속에서 새로운 안정적 질서, 보다 평등한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단순히 참기만 해도 살만한 미래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고통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